

호남 “잘한다” 69%…대구·경북 “못한다” 62% ‘극과 극’

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49.3%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잘못함’이라고 평가했고, 47.7%는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호남 지역민의 긍정평가는 압도적이었고, 대구·경북의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함’ (47.7%)보다 ‘잘못함’ (49.3%)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잘모름’은 3.0%였다.

지역별로는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호남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지역은 69.1%가 ‘잘함’이라고 평가했고, ‘잘못함’ (26.9%), ‘잘모름’ (4.0%) 순으로 답했다.

전국적으로 부정평가가 많아 남성보다 여성층은 긍정평가 젊은층 ‘잘함’ 고령층 ‘못함’

세부적으로는 42.9%가 ‘매우 잘함’이라고 답했고, ‘잘하는 편’ (26.2%), ‘매우잘못함’ (18.3%), ‘잘못하는 편’ (8.6%) 순으로 응답했다.

전국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잘못함’ 답변이 61.9%로 가장 높았고, ‘잘함’은 35.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서울(잘못함 51.1% vs 잘함 46.4%) ▲경기·인천(49.1% vs 48.7%) ▲대전·세종·충청(51.1% vs 46.0%) ▲부산·울산·경남(52.2% vs 44.0%)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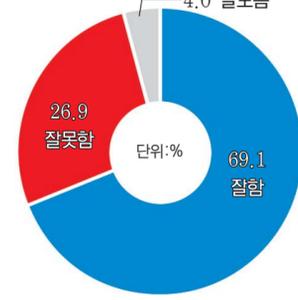
■ 국정운영 평가 <전국>



원·제주(49.8% vs 44.4%)에서도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정적 답변이 높았고, 여성은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긍정평가가 다른

<광주·전라>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19세~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 정부 지지’ vs ‘현 정부 심판’ 팽팽 호남 여당, 영남 야당 많이 당선돼야

■ 총선 프레임 <전국>

광주·전남 지역민은 오는 4월 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하 ‘여당후보 당선’)는 질문에 많은 공감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근소한 차이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는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하 ‘야당후보 당선’)고 응답해 영·호남의 ‘총선 프레임’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야당후보 당선’ 비율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여당후보 당선’을 많이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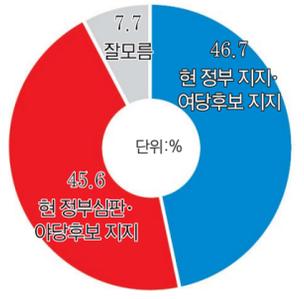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총선에서 다음 주장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는 질문에 전국 46.7%가 ‘여당후보 당선’을 꼽았고, 45.6%는 ‘야당후보 당선’을 선택했다. ‘잘모름’도 7.7%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당후보 당선’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 우세했고, ‘야당후보 당선’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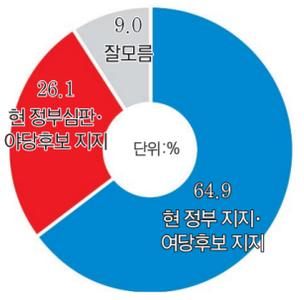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4.9%는 ‘여당후보 당선’이라는 총선 프레임에 손을 들어줬고, 26.1%는 ‘야당후보 당선’을 선택했다. 경기·인천도 ‘여당후보 당선’ (48.9%)이 ‘야당후보 당선’ (44.3%)을 앞섰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야당후보 당선 56.7% vs 여당후보 당선 35.6%) ▲부산·울산·경남(48.7% vs 43.2%) ▲대전·세종·충청 (48.0% vs 44.4%) ▲서울(47.9% vs 44.5%) ▲강원·제주(47.3% vs 43.0%) 순으로 여

■ 총선 프레임 <전국>



<광주·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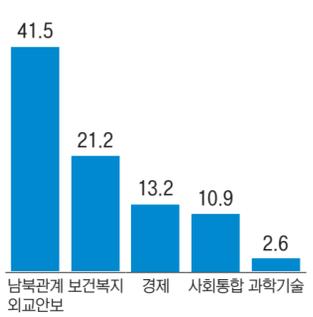


당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나이로 살펴보면 ‘여당후보 당선’은 40~49세(58.5%), 30~39세(53.9%)에서 높았고, ‘야당후보 당선’은 60세 이상(55.1%), 50~59세(49.1%)에서 우세했다. 또 남성은 49.3%가 ‘야당후보 당선’을 선택했고, 여성은 48.7%가 ‘여당후보 당선’을 선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북관계 긍정평가 많고 경제분야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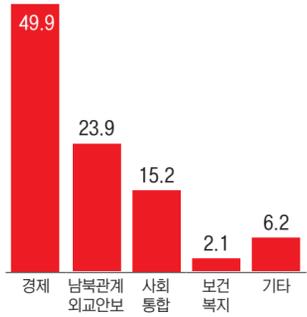
■ 긍정 정책 분야 (단위%) <전국>



<광주·전라>



■ 부정 정책 분야 (단위%) <전국>



<광주·전라>



국정운영 긍정·부정 정책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중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은 긍정 평가를 했고, ‘경제’ 분야를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일단 남북, 북미 회담의 성사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대한 기대가 크고,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긍정평가 높아=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 41.5%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를 첫 손에 꼽았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41.8%)을 비롯해 전 지역에서 38.1%~46.9%로 고르게 분포했

남북·외교안보 “잘한다”

전 지역서 고르게 분포

49.9% “경제 잘못하고 있다”

사회통합·보안복지 순 부정적

다. 강원·제주(46.9%), 경기·인천(44.7%), 대구·경북(41.5%), 부산·울산·경남(40.3%), 대전·세종·충청(37.4%), 서울(38.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46.7%)가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에서 43.8%~46.7%로 높았고 19~39세는 34.3%~39.3%대의 긍정평가가 나왔다.

또 여성(38.1%)보다 남성(45.3%)이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에 대한 긍정 평가에 후한 점수를 줬다.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 압도적=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잘못하고 있는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9.9%는 ‘경제’를 꼽았다. 이어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23.9%)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고, ‘사회통합’ (15.2%), ‘기타’ (6.2%), ‘보안복지’ (2.1%), ‘과학기술’ (1.2%) 등의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지층에서 고르게 ‘경제’ 문제를 지적했고, 연령과 나이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이 많았다.

‘경제’ 문제를 부정 정책 분야로 꼽은 응답자는 대구·경북(57.2%)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2.5%), 대전·세종·충청(49.9%), 경기·인천(46.7%), 광주·전라(44.9%), 강원·제주(40.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49세(54.8%)의 ‘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고, 전 연령에서 44.7%~54.8%대의 분포를 보였다.

또 여성이 50.5%로 남성(49.3%)보다 ‘경제’에 대한 격정이 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표본수 1만2명 무작위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이에서 2019년 12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방법은 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의 RDD(무작위 전화 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표집 방법은 2019년 11월말 주

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수는 1만2명으로 유선 1008명, 무선 8994명이었다. 총 통화 시도는 21만5290명이었고, 이 가운데 응답률은 4.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0.98%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春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世宗新報

생명영양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로

2018 결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미국부문 大賞 수상



남녘의

신 선 한 바 닷 바 람

풍 성 한 햇 별

깨 끄 하 고 맑 은 물

오 염 되 지 않 은 기 림 진 흙

에서 재배한 전라남도 농협 대표브랜드 쌀입니다.

“더 건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품질 좋은 쌀로 보답하겠습니다”

NH 농협 전남농협